

신소설에 나타나는 구원자·조력자형

인물 형상 연구:

「혈의 누」를 중심으로

최 유 학*

1. 서 론

고소설에 나타나는 구원자적 인물은 대부분이 초월적 존재 또는 초월적 기능을 구비한 인간으로 권선징악형의 인물이라는 데서 고소설의 권선징악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신소설에 이르러 고소설의 권선징악적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긴 하나 현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구원자 및 조력자형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작가의 현실인식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신소설에 나타나는 구원자 및 조력자형 인물형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가의 현실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인직의 「혈의누」는 1906년에 발표된 소설이나 소설속의 시대적 배경은 청일전쟁중의 평양전투가 이루어진 1894년 9월 13~15일로부터 시작하여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전까지로 추정된다.¹⁾ 「혈의누」는 청일전쟁 목단봉의 참상을 시발점으로 그 후 10년간의 시간의 경과 속에서 여주인공 옥련의 기구한 운명의 전변에 얽힌 개화기의 시대상을 그리고 있다.²⁾ 「혈의누」는 친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소설이 청일전쟁의 평양전투로부터 시작한 것과 옥련이 일본생활 4년, 미국생활 5년을 한 것, 그리고 김관일과 옥련어머니의 10년풍상이란 말을 보면 청일전쟁으로부터 러일전쟁 전까지가 그 시대적 배경이 된다.

일작가 이인직이 친일의 입장에서 옥련 가족의 이합사를 통해 열강의 침략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조선백성들의 피눈물의 애환을 서사화하고 이 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독립, 신교육, 신결혼관 등의 부국강병 및 개화문명 사상을 주장하는 신소설이다.

2. 조선보호론의 구현과 그 균열

신소설의 효시로 인식되고 있는 「혈의누」의 경우 부모를 잃은 어린 여주인공을 구원한 것은 일본 군인들이고 길을 잃었던 여주인공의 어머니도 일본 헌병대의 보호를 받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적 식민주의 담론에서 강조되는 조선보호론의 논리에 대한 승인에 불과하며 일본의 보호론을 앞세워서 이야기로 만들어진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에게 부여된 새로운 교육과 개화의 길이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³⁾ 「혈의누」에 있어서는 신학문의 섭취에 의한 국권의 자주적인 확립이 가장 중추적 주제로 되어 있으나 하편인 「모란봉」에 와서는 남녀 애정문제와 혼인문제가 전편에 걸쳐 주류를 이루고 있다.⁴⁾ 「혈의누」의 경우 주인공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조선을 개화하고자 하는 원대한 이상을 품고 일본, 미국 등지로 유학을 떠나 학문적인 성취를 이룩한 것처럼 보이나 「혈의누」의 속편인 「모란봉」에서 보여주다시피 돌아와서는 모두다 무기력증에 빠져 아무런 성취도 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모란봉도 미완으로 끝나고 만다. 이는 출국까지의 서사는 일제 식민지담론 하에 포섭될 가능성이 크나 돌아와서 활발한 정치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시 일제 식민지담론에 포섭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멈추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러일전쟁당시 일본 육군성의 한국어 통역관으로 임명되어 종군한 경력까지 갖고 있고, 그 후 한일합병조약 직전에 이완용의 하수인으로 매국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인직으로서

2)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년 9월, 24면.

3) 권영민, 「신소설과 조선 보호론의 실체 - 〈일념홍〉과 〈혈의누〉의 경우 -」, 이용남 외 저, 『한국 개화기소설 연구』, 73면.

4) 전광용, 앞의 책, 27면.

는 누구보다도 일제 식민주의 권력이 원하는 바와 금히는 바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혈의누」는 1906년에 발표한 을사조약 후의 작품이므로 구원자를 일본사람으로 정했다는 데서 일본에 의해 조선이 구원받는다는 조선보호론에 포섭되는 전형적인 작품이다.

「혈의누」의 경우 구원자·조력자 인물유형으로는 일본인구원자, 조선인조력자, 청인조력자 등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2.1. 불쌍한 조선여성의 구원자로서의 일본인

첫 번째 부류는 일본인들이다. 일본인 또한 조선에 전쟁재난을 들썩은 당사자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양사람들이 진저리내던 청인을 몰아내고 옥련어머니와 옥련을 구원해주는 은인으로 등장한다. 이인직은 청국을 물리친 강한 일본과 구원자로서의 일본인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일본구원자를 남성인물 위주로 설정하였으며 약한 조선과 불쌍한 조선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곤궁에 빠진 주요인물을 조선의 여성인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성중에서사람이 진저리내던 청인이그림즈도업시 다 쫓겨나가던일이오⁵⁾

본리평양성중사는 사람들이 청인의작폐에 견디지못하야 산골로피란근사람이만 터니 산중에서는 청인군사를만느면 호랑이본것갓고 외슈만느것갓다 어지하야그릇케 감정이사느우나 할지경이면

청인의군사가 손에가서 절문부녀를보면 겁탈하고 돈이잇으면 썩셔가고 제게 쓸새업는물건이라도 놀부의심사갓치 작난하니 손에피란간사람은 난리를 혼충더겨는다⁶⁾

이처럼 청인에 대한 혐오감이 소설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면 일본인에 대한 혐오감과 회의적인 태도는 조심스럽게 드러난다. 이는 평양사람들이 임진난리의 평양싸움 얘기를 하는 부분, 일본 군사를 “장마통에 검은 구름 떠

5) 이인직, 「혈의누」, 이용남 저, 『신소설 바로읽기』, 국학자료원, 2001년 5월, 236면.

6)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57면.

들어오듯”하다, “까마귀 떼 다니듯하다”고 묘사한 장면과 김관일이 청일 두 나라에 대한 규탄에서 나타난다.

평양사람이 일병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일병은 어떠한지 입진관리에 평양싸흙 이야기하며 별공논이 다니고 별염녀 다하던 그 일병이 장마통에 검은 구름 썬들어 오듯 성내성외에 빈틈없이들어와 백이던 날이라⁷⁾

그 새는 평양성중에서든사람들이 이번불소리에 다다라⁸⁾고잇는것은 일본군스썬이라 그 군사들이 까마귀 썰다니듯하며 이집저집합부루드러근다⁸⁾

봄바람에썬러진 꽃과 갖치 근곳마드 불에불피고 눈에걸리는피란군들은 나라의 운수런가 제팔즈기박혀야 평양빅성 되얏던가 쌍도조선쌍이오 사름도조선사름이라 식우싸흙에고리듬터지드시 우리나라사름들이 남의나라싸흙에 이렷케참혹흔일을당흔는가⁹⁾

… 범갓고곰갓든 타국사름덜이 우리나라에와서 곱싸흙할 심극도아니흐도록흔 후이라야 사름도사름인듯십고 사라도손듯십고 지물잇셔도 제지물인듯흐리로드¹⁰⁾

*밑줄은 인용자가 추가

옥련 어머니를 구원한 사람은 일본보초병과 일본헌병이다. 그러나 구원자로서의 형상에 균열이 생기는 지점이 있다 하면 보초병이 부인을 잡아서 앞세우고 병어리가 소를 끌고 가듯 하는 장면과 헌병이 부인의 집을 지나가면 서도 부인을 돌려보내지 않고 주인을 보고 반기는 개를 군도로 치려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보초병이부인을잡아서 앞세우고가는디 서로말은못하고 병어리가소를끌고가듯흔다¹¹⁾(235면)

헌병이소리를질너 가기를지촉하니 부인이흐릴업시 헌병부루잡혀가는디개는멍멍

7)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36면.
8)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40면.
9)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38면.
10)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39면.
11)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35면.

지지며 싸라오니 그개짓고 느오던집은 부인의집일러라¹²⁾

작가 이인직에게 의해 그려지고 있는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있어 불쌍한 존재일 뿐이다. 그 불쌍함이란 일본인의 연민과 동정심 많은 구원자형 인물의 특징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드러난 동정심 뒤에 조선을 지배하려는 일본과 일본인의 야심이 숨어 있다는 데서 구원자형 인물로서는 미달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작품에서는 조선인의 비애를 그리고 있고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지배자적 태도를 그리고 있다. 일본인에게 아무런 위협이 없는 부인이 일본군헌병부로 잡혀가서 듣는 말이 불쌍하다, 가엾다는 말 뿐이며 그 밤에는 군중에서 보호하고 그 이튿날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이산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이를 사건배치에 있어서의 이인직의 작가적 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주목을 요구하는 것은 이인직이 일본보호론의 자장속에 있으면서도 자주독립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이 소설에서 이미 청일 양국을 가해자로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의 전반부에서도 이미 청일 양국 모두가 가해자이라는 설정은 미약하게나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에서도 나타나지만 후반에 갈수록 이런 태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 청일 양국 모두가 가해자인 것처럼 옥련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옥련 어머니에게 있어 가해자는 크게는 청일전쟁 당사자인 청국과 일본이며 소설에서 지적했듯이 이는 또한 조선이란 나라가 약한 탓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한 유형으로 등장하는 인물로 옥련 어머니를 겁탈하려는 조선 농군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손이 복두갈구리갓튼” 농군도 결국은 아내를 잃어버린 피해자에 속해 있는 것이다. 후반부에서 나오는 구원서의 말을 빌면 청일은 조선을 도탄에 빠뜨리는 범과 곰같은 나라일 뿐이며 “조선백성 그 누구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¹³⁾

12)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36면.

13)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71면.

네는일청전쟁을 너흔자당한듯이알고잇느보다마는 우리나라사람이 누가 당하자야 니한일이야

철환맞은 옥련이를 구원하고 보듬어준 일본인 구원자 또는 조력자들로는 일본적십자간호사, 야전병원의 군의, 군의정상소좌, 군의정상부인 등이 등장한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옥련이에게 양아버지, 양어머니로 되어 준 사람이 군의정상소좌부부였다. 여기서도 일본군은 예외 없이 옥련이를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구원자로서 일본군의 형상에 균열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옥련이가 분명 일본군의 철환에 맞은 점이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마찬가지인 일본군의 한사람인 군의는 독한 약이 섞인 청인 철환을 맞지 않아서 다행히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군의의 말로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진실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설사 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난민에게 총을 쏜 일본군의 책임을 추궁하고 싶지만 추궁하지 못하고 작가는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당시 일본군이 조선 피난민을 살해한 사례가 많았는데 그중에는 청군을 도왔다는 죄명을 들썩워 무고한 조선 백성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사례도 포함된다.

가장 심각한 균열은 옥련이와 정상부인사이의 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옥련이와 정상부인의 사이는 원래는 남과 남의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시작하나 차차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 중 군의의 사망으로 옥련이와 정상부인 사이는 끝내 멀어지고 말며 3년 후 소학교를 졸업한 후 옥련이는 자살하러 항구로 향하다가 자살을 못하고 가출을 하게 된다. 옥련이와 정상부인의 사이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의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는 자 사이는 구원을 받는 조선과 조선을 구원하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조선을 삼켜버리는(해치는) 일본의 관계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작가가 정상소좌와 정상부인을 등장인물로 설정한 것은 바로 이런 구하면서도 버리는 스토리 전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옥련이의 몰주체성에 대해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옥련이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 일본에 가거나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버린 인물이다. 옥련이의 몰주체성은 조선의 개화와 부국강병의 길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어정쩡한 현실에 처해 있는 조선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며 독립자주를 원하면서도 독립자주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본의 존재에 의해 그 독립자주의 염원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이인직의 고민과 현실의식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정상소좌의 편지 하나로 정상부인에게 맡겨진 옥련은 어쩌면 시초부터 거 추장스러운 존재였다. 첫 만남에서 옥련의 눈에 비친 양어머니는 눈에 살기 띤 냉랭함일 뿐이었다. 이는 일제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이인직의 눈에 비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인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인직의 정치적 감각은 실세인 일제를 추종하여 개인의 영달을 취하도록 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추구해온 조선의 부국과 강병을 위한 개화와 그 개화를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불평등한 을사조약을 계기로 허황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점차 도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친일매국의 눈에 깊숙이 빠져버려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일부 담을 수 있는 곳이 소설 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

옥련의모친은 눈에요교가있더라
 정상부인은 눈에 살기만드러터라
 옥련의모친은 얼굴이희고 도화식을 찍었더니
 정상부인의 얼굴이희기느희는 청기가돈다¹⁴⁾

얇전도 하고 쌀쌀도 한 정상부인을 만나는 일곱 살 옥련이는 마음이 생소하고 불편할 뿐이며 정상부인의 쌀쌀한 모양에 한없이 움츠러들 뿐이었다. 옥련의 움츠러듬에 식민지인의 비애가 담겨 있다. 그러나 서술자에 의하면 이는 옥련이 혼자 맘 뿐이었고 정상부인은 사실 옥련이를 사랑해 줄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 정상부인의 사랑은 남편의 부탁에 의해서로서 아직 그 진의는 완전히 파악이 되지 않는다. “옥련이를 흘금 흘금 보는 것”도 그렇고 “조선복색을 빼기고 양복이느 입피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든지 그 사랑이 조선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라기보다 동화시킨다는 목적의식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조선복색을 벗기고 양복을 입히는 것이 개화사상과 일치한 설정이기도 하지만 조선복색을

14)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56면.

벗기는 것은 조선인을 동화시키자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조선인을 도와 줄 것이라는 믿음, 조선을 도와 야만의 조선복색을 벗기고 문명의 양복을 입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옥련에 대한 정상부인의 사랑으로 일단 일부 성취되는 듯 보인다. 이는 수일이 못되어 정상부인이 저를 사랑하는 눈치를 알고는 옥련이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된다는 데서 확인된다.

정상부인이 날이갈수록 옥련이를귀익히고 옥련이는 날이갈수록 정상부인의게 싸른다¹⁵⁾

어쩌면 조선이 청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이 인식이 인식하는 조선과 일본의 사이가 바로 정상부인과 옥련이의 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친근한 사이였을 것이다. 소설에서 식민지 고아를 사랑해주는 정상부인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러나 옥련이가 일본에서 반년이 못되어 일본어를 통달하게 되며 “정상군의 집에 와서보는사람들이 옥련이를 일본아호로보고 조선아호로는 보지아니흔다”는 것에는 식민지인을 동화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식민제국의 시선이 담겨 있는 것이다. 옥련이를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정상부인과 그 주변의 일본인들의 기대에 걸맞게 옥련이의 노력도 처절하며 일부 면에서 일본인처럼 되어가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

정상부인은 개가를 하려다가 옥련이를 위해 개가를 하지 않는 큰 희생을 하기로 결심을 하나 옥련이에 대한 사랑은 점차 식어져 가고 옥련이에 대한 원망과 신세한탄만 늘어간다. 이런 와중에 주변사람들 또한 정상부인의 희생에 대한 동정과 그의 덕에 대한 칭찬과 함께 옥련이가 정상부인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 준다. 이는 옥련이가 일본인이 절대 될 수 없게 만드는 기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혜자의 차원에서 조선인을 불쌍하게만 바라보거나 또는 시혜를 한 후에 그 대가를 요구하고 그러면서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부단히 의심하고 회의하는 정상부인과 일본식민제국의 시선이 겹쳐지는 부분이 아래 인용된 부분에서 나

15)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57면.

타난다.

네 ㅁ조선서자라스면 곧 공부하는 구경도 못 하얏을 것이다 네운수쥬호려고 일청전징이
는 것이다

네운수는 조아스네 다투슈만글렀다

너허나 공부시키려고 허구헌 세월의 이고싱을 호고있다

부인이 덕식의 말이 퍼부어느오니 옥년이가 고기를슌이고...¹⁶⁾

“네가 조선서자라스면 곧 공부하는 구경도 못했을 것이다”는 조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조선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옥련의 자살결심은 바로 정상부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한 것이었다. 고아의 불운을 초래한 청일전쟁을 “교육”의 미명하에 정상부인은 고아의 운수 좋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인직은 이를 “덕색”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그러나 친일작가인 이인직은 친일이념상 절대 정상부인의 옥련포기를 원하지 않으며 옥련이의 양모포기 또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부인의 옥련포기 또는 옥련이의 양모포기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 하에 개화명명의 길을 걷는다는 그의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것이며 소설에서 그러한 입장이 나온다는 것은 현실사회에서의 그의 정치적 생명과도 자칫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인직이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었을 것이다.

작가는 정상부인의 옥련이에 대한 천대와 버림을 개연성 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천대를 하되 그렇게 심하게 천대한 것이 아니고 인지상정의 이해가 능한 천대였으며 버림도 정상부인이 옥련을 버린 게 아니라 옥련이가 스스로 나간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옥련의 대판양어머니가 옥련이를 버린 것이 “청상과부가 시집가지 아니하는 악흔풍속은” 문명한 일본에서는 없기 때문에 옥련을 버리는 것은 이해가 능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리고 정상부인의 “악”을 조금이라도 덮어주기 위한 장치로 정상부인집의 하인인 노파를 옥련이를 쫓아내는 악인형인물로 등장시켰으며 정상부인이 옥련이를 버린 것은 그 노파의 충동질로 인한 것처럼 설정해 놓았다.

16)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62면.

불빛을등지고 드러누웠는데 귀에들리나니 가슴압퐁소리라 로파는 부인의 마음
 조토룩만물 하니 부인은 호로밤누에 로파와엇지그리 정이드러던지 로파더러호는말
 이
 “여보게넌가 어디로가던지 자네는다리고갈터이니 그리알고잇스라”
 하니 로파의딛답이
 … 자근앗씨는 어디로 쫓츠보내시면 그만이지오
 …
 옥년이가 이러느서 혼참을감안이안져서 로파의드러누흔것을 흘겨보며호는말이 이
 몹슬늬은어우야 사름을뻗치느 잡아먹고잇 썩 까지 사랏느냐
 누는 너보기시려 급히 깃다
 네는 저모양으로 퍽년만 더 살러라 호더니 다시머들러 정상부인을보며 호는말
 이
 어리고 약흔 이내몸이 만리타국에서 딛판어머니만맛고살랏소
 내몸이 어머니의 그리흔은혜를 입었는딛 내몸을인연호야 어머니근심되고 어머
 니고싱되면 그것은옥년의 죄올시다
 옥년이가 사라서는 어머니 은혜를 갑흘슈가업소
 호로밤비 호시밤비 밤비 밤비 엇스면 어머니에게 걱정되지아니하고 내근심도 이
 저모르깃소
 어머니 누는가오 부딛근심말고 지내시오¹⁷⁾

옥련의 대판양어머니가 옥련이를 버린 것이 그 연유가 있듯이 옥련이가 대판양어머니를 버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가출을 하게 된 것은 양어머니에 대한 호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인 노파가 미워서였지 대판양어머니를 증오해서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혈의누」에서는 구원자적 인물의 양면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구원을 받는 인물의 내면갈등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일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환상을 그대로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작가의 내면갈등으로 읽힐 수 있다. 물론 소설의 이 부분에서 일본의 “문명화” 개가풍속을 통해 결혼풍속의 개량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본인구원자와 조선인사이의 미묘한 관계변화를 놓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17)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65-266면.

2.2. 구원서 — 진정한 구원자·조력자형 인물로서의 남성 조선인 조력자

두 번째 유형의 구원자·조력자형 인물로는 의지가없이 헤매는 11살 난 옥련이를 구원해준 옥련의 눈에 17, 8세 되어 보이는 조선의 서생 구원서로 그는 미국유학목적으로 집을 나섰으나 어떤 사정으로 겨우 일본에 밖에 오지 못하고 답답해하던 중이었다. 처음부터 일본이 아닌 미국을 유학목적으로 선정했고 “불과 일본에 와서” 답답한 생각만 난다는 것이 언어문제로 인한 것만은 아닌듯하다. 이는 옥련의 아버지 김관일도 미국을 유학대상국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일본도 따라 배워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미국의 문물을 배워야 더 훌륭한 문명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읽힐 수 있다. 좀 더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조선의 진정한 자주독립과 문명부강은 미국을 배워서 실현할 수 있으며, 일본을 초월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을 따라 배움에 있다는 것이 미국유학을 선택한 인물들의 생각인 동시에 이인직의 생각인 듯하다. 물론 일본의 민감한 상황을 서술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상황을 서술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소설의 전반 내용에서 미국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일본에 처음으로 오는 사람이라 네게 무려볼일이잇스니 ...18)

나는 공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도모르게 미국을갈차로 나섯더니 불과여귀를와서 이렇듯 답답한 생각만느니 잊지하면 조흥지모로 깃다19)

(서칭) “.....네는 일청전칭을 너혼자당한듯이 알고잇는 보다마는 우리나라사람이 누가 당하지 아니한 일이나 제곳에 아니고 제눈에 못보았다고 티평성세로아는 사람들은 밥벌레라 사람사람이 밥벌레가 되야 세상을 모르고 지니면 몇히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청전칭갓흔관리를 또 당할거시라 호로뵈비공부하야 우리나라의 부인교육은 네가 맛타 문명길을 여려주어라”20)

18)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70면.

19)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71면.

*밑줄은 인용자가 추가

앞의 구원자조력자들이 모두 일본인인데 비해 조선인조력자의 등장은 진정한 조력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인구원자와 대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일본인양부모가 옥련이가 불쌍한 조선인 전쟁고아이어서,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시혜자의 차원에서 양딸로 삼아 공부 시켜주고 키워주지만 양아버지가 사망한 후 양어머니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 끝내는 옥련을 버리게 된다. 이에 비해 구원서는 옥련이를 진심으로 돕고자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옥련에 대한 태도에 있어 양모는 옥련이의 보은을 바라고 있고 구원서는 옥련이의 보은을 바라고 있지 않는다는 데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구원서를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 미국은 위기에 처한 구원서와 옥련에게 개인적 위기를 타개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부국강병, 문명개화의 학문을 닦을 수 있다는 데서 나라의 위기도 타개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던져 주고 있다.

구씨의목적은 공부를심썌하야 귀국후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갓치연방도를삼으되 일본과민썌를 혼디합하야 문명헌 궁국을 맨들고즈흔(비스목)갓한마음이오²¹⁾

세상에 제목적을 제가즈고하느갓갓치 질거운일은 다시업는지라 구원서와 옥련이가 늑이이려서 외국에간사람들이라 조선사람이 이렷게야만되고 이렷게용넨한썌를 모르고 구씨던지 옥련이던지 조선에도라오는날은조선도유지한 사람이만히잇서서 학문잇고 지식잇는사람의 말을듯고 일를찬성하야 구씨도 목적되되고 옥련이도 제목적되조선부인이 일제히 늑교혹을바다셔낫낫시 늑와갓한학문잇는 사람들이 만히싱기려니 싱각하고 일변으로갓분마음을 이기지못하느거슨 제나라형편모르고 외국에유학한소년학싱 의기에서늑오는 마음이라

구씨와옥련이가 고목적되되되든지못되든지 그거슨후의닐이러니와 ...22)

*밑줄은 인용자가 추가

위의 인용문에서 조선을 일본과 만주와 한데 합친다는 것은 1905년 을사

20)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71면.

21)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85면.

22)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85면.

늑약에 이어 한일합방의 여론을 조성하는 조선보호론의 선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친일매국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설 내적 맥락에서는 구원서의 부국강병, 문명개화의 이상은 구원서가 비사맥이 되고 조선이 주도가 되어 이끈다는 점에서 조선보호론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비껴가는 면이 있다. 그리고 작가의 현실인식이 구원서와 옥련의 차원보다 훨씬 깊고 우월하다는 서술을 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작가는 구원서와 옥련의 이상에 대해 그 당위성을 긍정하고 있으나 어린 나이의 의기에서 나온 조선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위의 인용문에서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들 조선유학생들의 부국강병, 문명개화의 이상은 조선의 현실과 부딪쳐 맥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고 난 후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조선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어버린 이인직의 현실인식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후편 「모란봉」에서 학문을 성취하고 돌아온 인재들이 부국강병의 활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고 「모란봉」이 미완으로 끝나고 마는 것도 작가의 깊은 체념에 빠진 의식상태의 소산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옥련이의 아버지 김관일이 “사라있는사람들이나 이후에이러흔일을 쏘당흔지아니헝게헝는것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구원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조선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일청전징갓흔란리를 쏘 당홀거시라”는 불안은 소설 발표 직전인 1904~1905년에 러일전쟁 및 을사늑약으로 이미 현실화 되어버린 상태였다. 작가가 이 소설의 배경을 러일전쟁 직전에 배치한 것도 이러한 현실과 연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고 있는 원인으로 짙은 패배주의적인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조력자의 설정은 위기에 처한 조선인은 조선인이 나서야 진정으로 구할 수 있고 나라의 위기도 조선인 스스로가 견져야 하며 타국과 합방으로 연방국을 추진하는 것도 조선과 조선인이 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나마 뒷 구석에 깊이 숨어 있던 작가의 민족의식과 민족자강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동족이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 서로 통하는 뉘가 있듯이 구원서와 옥련이는 서로 엮어지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두 사람 모두 다시는 청일전쟁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는 나라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부에 전념하게 된다. 물론 옥련은 주체적이라기보다 수동적으로 구완서의 영향 속에서 구완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구완서라는 조력자의 인물이 옥련이보다 더 중요하며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자강의 길에서 주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옥련이를 구완서가 이끌고 있다는 것은 민족과 나라의 구원자 인물에 대한 설정으로서 구완서를 등장시켰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구완서와 옥련이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 소설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서술자인 작가 본인이었다. 작가는 “구완서와 옥련이가 늑이어서 외국에 간사들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좀 더 높은 단계로 이끌고 구원해주고자 하고 있다. 별로 희망이 없는 현실을 통감하고 있는 작가는 그래도 구완서와 옥련이의 뜻만은 높이 사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소설은 조선의 개화의 희망보다는 조선의 식민지화의 哀歌를 얘기하고 있으며 현실차원에서 개화의 실현보다는 환상차원에서의 개화의 실현을 논하고 있는 셈이다.

2.3. 악인형 가해자에서 선인형 조력자로 “돌변”한 청인의 이미지

세 번째 구원자·조력자형 인물로는 상항(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영어를 몰라 헤매고 있는 구완서와 옥련에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강유위와 일어 잘하는 청인이었다. 길안내와 학교소개 정도의 간단한 도움이지만 이 같은 설정은 청인에 대한 작가의 모순적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한다.

청인 특히 청인군사는 초반부에서 극악무도한 침략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만 후반부에 와서는 온화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조선으로부터 미국으로 그 공간적 변화가 일어났기는 하나 초반부의 가해자의 모습이 구원자의 모습으로 후반부에 나타났다는 것은 초반부의 가해자의 모습에 대한 일부 수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인에 의해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옥련이와 겨우 일본에 밖에 오지 못하고 답답해하다가 미

국에 받을 불인 구원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인도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니고 뜻밖에 청인이었다. 그것도 무협소설이나 나올듯한 협객과 같이 “마차를 타고 풍우같이” 등장한다는 설정 자체도 청인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돌변하였다는 느낌을 준다.

그릇튼곤란헌던차에 청인로동즈흔픽가 지느거날 서싱이조즈가서 필담헝기를 청
 하니 그로동즈중에는 한문자야는사람이업는지 손으로눈을가리더니 그손을다시들
 어 회쾌내짓느모양이 무식헝야 글 짜를못아라본다 헝느눈치라

그 석맛참 엇더흔청인이 희빛에윤이질흐르고 흐르느비단웃을입고 마차를 타고
 풍우갓치달려가느딴 서싱이 그 인을가르치며 ...²³⁾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인들 중 강유위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강유위는 청일전쟁 직후 일본 메이지유신을 본받아 자국에서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자이고 일본에 비교적 우호적인 청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물설정 역시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일본보호론의 자장 속에 놓여있다고 봐야 한다²⁴⁾. 이인직은 소설에서 강유위를 “청국기혁당에 유명한 강유위”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유명한 청인을 소설의 등장인물로 설정한다는 것은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사전개의 개연성을 떨어뜨리는 위험성 또한 안고 있다. 물론 강유위라는 인물설정은 강유위가 중국근대사상 세계각지를 가장 많이 돌아다녔고²⁵⁾ 미국에도 가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일정한 개연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보다는 강유위라는 인물에 대한 이인직의 개인적 관심의 소산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23) 이인직, 「혈의누」, 위의 책, 274면.

24) 강유위(1858.3.19-1927.3.31)는 1898년 열강이 중국을 분할통치할지도 모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강유위와 그의 추종자들은 러시아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일본과 연맹할 것을 제안했던 적이 있으며 변법운동이 실패하자 자기의 제자인 양계초와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25) 1898~1914년간의 강유위의 행적은 “유신백일, 출방십육년, 삼주대지, 유편사주, 경삼십일국, 행육십만리(“維新百日, 出亡十六年, 周游大地, 遍四洲, 經三十一國, 行六十万里”) 유신은 백일, 망명은 16년, 세 번 세계를 돌고, 사대주를 돌아다니며, 31개국을 가고 60만 리를 갔다)”라는 27자로 개괄할 수 있다. 그는 중국근대사상 세계각지를 가장 많이 돌아다녔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접촉한 여행가였다.

강유위가 이인직과 동시대 인물이며 변법운동 실패로 외국에 망명해 있을 때 일본인 처를 맞았다는 점에서 일본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인직의 관심을 끌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작가 이인직이 본받아야 할 개혁자의 모델로 설정한 인물이 강유위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인물설정으로 인해 열강의 침탈 속에 놓인 청국과 조선의 국제적인 처지 및 양국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비슷하며 이로 인해 상호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소설화되었고 소설의 전반부에서 악인으로 설정된 청인이 선인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본보호론의 허상과 본질을 작가의 본의 아니게 드러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미국에 와서 헤매는 옥련이와 구완서는 유학을 하러 왔다는 것 외에는 그 곳에 와 있는 청인노동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청인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던 처지였고 학교도 청인학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청인이 침략자로부터 동맹자로 발전하는 양상까지도 미약하게나마 드러내고 있다.

3. 결론

이상 이인직의 「혈의 누」를 중심으로 신소설에 나타나는 구원자조력자형 인물의 유형과 각 인물이 서사 전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당대 정치 현실상황과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이인직의 「혈의누」의 경우 일본인 구원자는 진정한 구원자라기보다는 작가가 정치적 감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일본보호론의 자장에 스스로 위치시키기 위한 설정일 뿐이었다. 일본인구원자는 소설에서 그들이 과연 진정한 구원자일까라는 회의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미달상태로서의 구원자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비해 조력자로 등장한 구완서는 일본인구원자처럼 보은요구와 시혜자의 도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구원자조력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스스로의 자장에 의해 부국강병을 실현해야 한다는 자주독립 주장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본의 조선훈보론에 분열이 나타나는 것은 이인직 작가 개인의 현실인식과 밀접히 관계되며 당대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히

관계된다. 특히 청인조력자로서 강유위 등 청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인적이 문명개화의 하나의 모델인물로 설정한 강유위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초반부에 등장한 악인형의 청인을 후반부에 와서 선인형으로 그것도 조력자로서의 인물로 등장시킨 것은 강유위가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라는 데서 친일보호론의 자장에 속하기는 하나 연대자와 동맹자의 가능성으로서 청인조력자를 인식하고 있기도 한다는 점에서 청인에 대한 작가의 이중적인 태도가 엿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 현대 문학사』 1, 민음사, 2002.
- 김경애,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 연구」, 『여성문학연구』, 2001.
-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2005.
- 문성숙, 『개화기소설론 연구』, 새문사, 1994.
- 설성경, 『신소설 연구』, 새문사, 2005.
- 성현자, 『新小說에 미친 晚淸小說의 影響』, 정음사, 1985.
- 이용남 외 저, 『한국 개화기 소설 연구』, 태학사, 2000.
- 이인직, 「혈의누」, 이용남 저, 『신소설 바로읽기』, 국학자료원, 2001.
- 전광용, 『新小說 研究』, 새문사, 1986.
- 조동일, 『新小說의 文學史의 性格: 前代小說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韓國文化研究所, 1973.
- 최성민, 「공간의 인식과 식민 담론 — 이인직 신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근대 문학연구』 Vol.6 No.1, 2005.
- 최원식, 「식민지 시대의 소설과 동학」, 『현상과인식』 5권 1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81년.
- 최중순, 『이인직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2005.
- 황정현, 『신소설 연구』, 집문당, 1997.